

청년주보



캘리 | 이아미카 그림 | 안오틸리아

입당송 시편 17(16), 15 참조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흠족하리이다

제1독서 이사 55, 10-11

화답송 시편 65(64), 10-11, 12-13, 14 (◎ 루카 8, 8)

-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울리며 노래하나이다. ◎

제2독서 로마 8, 18-23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마태 13, 1-23 <또는 13, 1-9>

영성체송 시편 84(83), 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동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코로나19 시기에 봉사하는 신내동 성당 청년들



신내동 성당은 미사 재개 후 미사 대수가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른들이 발열 체크 및 인적사항 확인을 모두 해주셨는데요. 미사 대수가 늘어 청년 미사(주일 18:00) 때에는 청년들이 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4면에서 자세히 만나보아요.

우리를 향한 소중한 신뢰



박민재 미카엘 신부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목상 나눔을 접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의 빛에 우리 자신들을 기쁨으로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주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임을 고백하면서 이를 삶으로 함께 만끽하길 희망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희망하고 기뻐하는 이들이기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선포된 오늘 복음은 우리 안에 담아주신 당신의 생명에서부터 전해지는 울림에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근원이신 생명을 향해 시선을 어떻게, 얼마나 두고 있는지 성찰하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서 성찰을 하며 제 안의 울림으로 올라온 주님의 시선은 ‘신뢰’입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 발을 들여다보라는 주님의 초대는 전적으로 자비와 치우침 없는 사랑이 기초로 이루어진 ‘신뢰’가 있기에 저희에게 빛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씨 뿌리는 이의 형상은 당신 생명을 지닌 우리 각자를 포함한 모든 존재에 대한 ‘신뢰’입니다. 언제나 지치지 않고 담아주고 계신 당신의 선익을 공동선으로 이루고 실천해가는 열매 자체를 향한 ‘신뢰’이십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뉴노멀 시대라 명명되는 이 시기에 통합 생태적인 관점에서 생명과 존엄성이 화두가 되고, 사유하는 삶에 대한 소중함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이 이미 지니고 있는 삶입니다. 생태문명 신학자 매튜 폭스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계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탄생한 ‘원복(Original Blessing)’이라고 했듯, ‘세상 속의 교회’(『교회현장』 1항 참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창조 때 이미 받은 축복을 회복하고, 하느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소하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발견되기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생명된 삶의 근원을 향하고, 이미 ‘원복’의 상태에 삶의 시선을 두고 있는 우리 각자는 마음 발을 헤아리고자 하는 내면의 울림에 응답해가는 사유의 삶이 절실한 시기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각은 이미 오늘의 복음에 담겨있는 주님의 초대와 신뢰로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7년 연중 제15주일 삼중기도 훈화 중에 “예수님은 말하자면, 당신 말씀이 떨어져 자라는 토양인 우리 마음을 ‘영적인 엑스레이(X-ray)’를 찍어보십니다.”라고 전해주셨듯, 우리 각자의 시선에 그리스도를 담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지니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들이 모여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의 시선이 사회의 시선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분께서는 젊은이의 마음에 뿌려진 선의 씨앗을 소중히 여기고 길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젊은이의 마음은 ‘거룩한 땅’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67항)

내.알.맞
마.아.춤
음.주.성
을.는.구



친구와 싸우고 화해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2코린 13,11)



세상 이야기를 가톨릭 청년답게 나누보는 담소 공간

즐거로운 청년 생활

Ep28. 소비가 확실한 행복? — 진정한 “소확행”을 찾아서

남들 보시기에 참 좋더라

명품 브랜드를 나누는 기준은 딱히 없지만, 명품 반열에 드는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너도나도 명품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명품을 갖고 나타났을 때 누군가가 알아봐 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야. 실제로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휴가까지 내서 지방 원정을 간다든지, 고급 자동차나 고가의 시계를 사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는 사례를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지. 자기만족을 넘어서, 타인의 시선을 즐기는 걸 치레를 위한 소비. 능력의 발휘일까? 아니면 허영심의 발로일까?

겉치레

flex하다

소비 만능주의

진정한 만족

방종으로 변한 자유 소비

얼마 전 한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그 회사 로고가 그려져 있는 작은 가방을 사은품으로 내걸고 판촉 행사를 한 일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방을 받아 다시 비싼 값에 되팔 목적으로 약 300잔의 커피를 산 뒤에 마시지도 않고 가방만 가지고 갔었고, 이 행동은 많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지. 반면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산 커피를 두고 가방만 갖고 간 게 무슨 문제냐’는 반응도 심심찮게 엿볼 수 있어. 아무리 자신의 금전을 지출하는 자유로운 소비일지라도, 그 행위가 사회 상규를 벗어나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그러한 방종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름신’ 강림?

어느샌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된 ‘지름신’은 말, 아마 잘 알 거야. 스스로가 그 소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갖고 싶은 물건이나 티켓을 손에 넣는 행위를 이야기하지. 요새는 ‘flex’라는 말로 바뀌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금전적 지불을 통해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한 주 간, 한 달간의 삶을 감사하면서 우리들은 봉헌금을 ‘flex’ 한 적이 있을까? 우리가 영적인 만족은 뒤로한 채 물질적인 소유만을 중요시하는 건 아닐까?

우리 모두의 내적 성장을 위하여

이처럼 나의 진정한 성장이 아닌, 남이 보는 내 모습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무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자유를 주셨다고 해도, 그것을 물질적인 요소로만 풀어내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 주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 휘황찬란하다고 해서 더 예뻐하시지도 않고, 가난하고 초라하다고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잖아.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나에게 대한 남의 시선, 나아가 남을 보는 나의 시선을 조금 더 다듬어 보는 건 어떨까?

사랑하는 청년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 나의 재화를 쓰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지나친 소유욕으로 나만의 만족만을 채우기보다 타인의 고통과 가난도 돌보며 자비를 실천하면서, 나의 영적인 성장과 하느님의 사랑을 동시에 얻어 보는 건 어떨까요? (『DOCAT』 164~170항을 읽어 보세요.)



즐거로운 청년 생활에서 함께 나누고, 고민하며, 서로 사는 얘기를 들어 보아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갖고 다니는 물건이 있나요?

비뚤어진 소유욕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려놓으면 된다

구태여 네 마음을 괴롭히지 말거라

부는 바람이 예뻐서 그 눈부심에 웃던 네가 아니었니

받아들이면 된다

지는 해를 깨우려 노력하지 말거라

너는 달빛에 더 아름답다

심표

[시인 서해진, 너에게]

코로나19 시기에 봉사하는 신내동 성당 청년들

Q. 봉사를 하면서 어떤 걸 느끼고 있나요?

A.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미사 참례를 오는 신자들이 적지 않음을 느낍니다. 함께 기도하고 방역에 힘쓰는 모습을 통해 미사는 모두가 함께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의 공동체 정신을 새롭게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방법을 강구해가며 미사를 지속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_ 김소정 안나(성서모임)

A. 봉사를 하게 되면 미사 참례하러 오는 분들의 얼굴을 전부 보게 되는데 다들 웃는 얼굴로 오면서 인사를 해주십니다. 그 모습에 봉사하는 청년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기쁜 마음으로 미사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_ 전소희 첼리나(성가대)

Q. 청년 활동이 중단되었는데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A.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주 보지 않으면 사이가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이 시기에 만남, 참여, 봉사의 빈도가 줄어들다 보니 저의 마음도 교회와 교우들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혹은 교우들이 나를 서먹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성령을 통한 일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며 사회적,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신앙적, 영적 친교가 절실합니다.

매일 봐도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문드문 봐도 친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가치의 공유와 마음의 소통 여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향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가치를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되며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일치를 이루는 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세계가 예전의 활기를 되찾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_ 김민상 블라디미르(전례부)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와 멀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신앙
사이다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야. 어서 가도록~!

널 기다리고 있을 하느님을 생각해봐~

과연 코로나19 때문일까? 믿음이 약해진 건 너 자신일 수 있어.

청소년국 청년부 직원 채용공고

모집인원 계약직 1명(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근무부서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업무내용 청년 사목에 관한 기획 및 운영 업무

우대사항 1) 청년 활동 유경험자 2) 영어 가능자 3) 영상편집 가능자

제출서류 각 1부씩 - 청년부 홈페이지(www.2030.or.kr) 공지 게시판 참고

접 수 2020년 7월 19일(일)까지 이메일 접수(mail@2030.or.kr)

2020년 서울대교구 청년 영성 피정

일시 9월 18일(금) ~ 20일(일)

장소 시흥 계수동 성바오로 피정의집(1인 1실)

대상 서울대교구 소속 20-39세 청년(선착순 35명)

금액 160,000원

접수 7월 14일(화) 오후 2시~

청년부 홈페이지(www.2030.or.kr)에서 신청